

부산

자치광장

백양생활체육관 개관

부산 북구청은 지난 1일 북구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인근에 주민 생활 체육시설인 백양생활체육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연면적 270여평 규모의 동형 백양생활체육관은 배구와 농구, 족구,탁구 등 6개 종목의 실내 스포츠 경기장과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강희경기자**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

부산시는 5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제7회 사회복지의 달 및 제13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을 갖는다.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달(9월)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의 달(9월 7일)을 맞아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제1부 초청강연, 제2부 기념식이 진행된다. **임광명기자**

'여대생 공학' 부경대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는 최근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신청한 29개 대학 가운데 영남대에 부경대를 비롯,연세대(서울),성균관대(경기·인천),강원대(충청·강원),호산대(호남) 등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44억 원이 지원될 이번 사업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멀티플레이어형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은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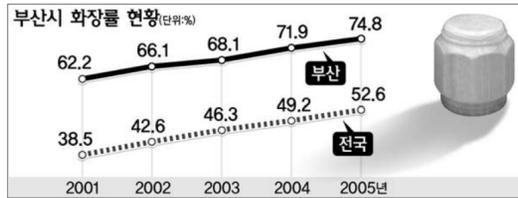
부산 화장률 2년 연속 1위

2005년 74.8%... 전국 평균보다 22.2%P 높아

부산의 화장률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2005년 부산의 사망자는 1만8천727명, 화장건수는 1만4천14건으로 집계돼 화장률이 7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이같은 화장률은 전국 평균 52.59%에 비해 22.24%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시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2위를 차지한 인천은 화장률이 69.04%에 그쳤으며, 서울(64.85%) 울산(61.65%) 경기(60.27%)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화장률이 가장 낮았던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으로 27.21%에 그쳤으며, 충북과 충남도 각각 29.74%와 31.60%로 화장률이 다른 시·도에 비



시, 100세 이상 맞춤형 경로 서비스 추진

부산시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경로우대 복지시책을 추진한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인 남성 5명 여성 93명 등 총 98명. 시는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전수조사에 착수해 오는 5일께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매장지 부족 매년 큰 폭 증가

영락공원 유치 내년 포화 예상

해 현저히 떨어졌다. 부산의 화장률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01년 62.2%에서 2002년 66.13%, 2003년 68.13%를 기록했으며, 특히 2004년에는 71.92%로 처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화장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부산의 화장률이 높은 것은 일단 매장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부산시가 1995년 영락공원을 개원함으로써 기존 매장위주의 장사정책에서 화장·납골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락공원의 화장건수는 2001년 9천646건, 2002년 1만1천279건, 2003년 1만1천448건, 2004년 1만3천268건, 2005년 1만4천896건, 2006년(6월말 현재) 8천13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화장률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영락공원이 수용할 수 있는 납골 시설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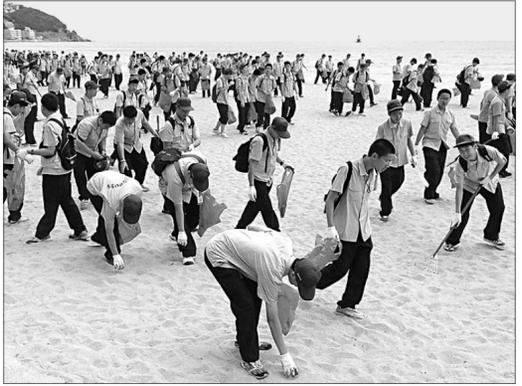
영락공원 유골 안치능력은 총 8만6천527위인데, 지난 6월 30일 현재 86.3%가 이미 안치돼 남아있는 수용 여력은 1만1천여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루 평균 1위, 연간 7천538위가 필요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내년 중으로 납골시설이 포화상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이후 부산에서는 90% 이상 화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시설 확보를 위해 기장군 정관면 두령리 일원에 추모공원을 조성중에 있다"고 밝혔다.

모두 10만위가 분양될 부산추모공원의 납골당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질 예정이다. **임광명기자 kmyim@busanilbo.com**

특히 100세 이상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경정사친형영 △이·미용 △119 자동신고 시스템 설치 △의치 및 치아 보철 △건강진단 실시 △무료식사 및 밑반찬 배달 △말뚝 등 서비스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각 구·군에는 오는 10월까지 자체 경로우대 시책을 발굴해 제출토록 통보했다. **임광명기자**



해운대해수욕장 청소 바다사랑실천운동연합은 2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청결운동을 벌였다. **강선배기자 ksun@**

“연해주에 ‘민족의情’ 심어요”

대한민국청소년봉사단, 4일부터 현지 봉사

한국의 젊은이들이 연해주 땅에서 우리 민족의 정(情)을 심는다.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은 4일부터 10박11일 일정으로 러시아 연해주 빠르티잔스크를 방문, 현지 동포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봉사단은 전국 13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중 부산의 청소년도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10일간의 일정동안 이들은 고려인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물놀이·태권도 교습 등 동포대상 다양한 활동 벌여 추수를 거드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고려인 문화회관 3곳에 한국체험관을 설치하고 사물놀이, 태권도는 물론 올해 한국을 휩쓸었던 꼭지점 댄스도 현지 동포들에게 가르쳐 이들의 민족정체성 회복을 도울 계획. 또 출발 전 한국에서 모은 학생용 가방과 학용품, 악기 등을 전달해 다음 세대의 민족교육도 지원한다.

이번 봉사단의 부산지역 청소년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지구촌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열기자 bell10@**

사건·사고

'친구왕따' 가해 학생 폭행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일 등학생을 '왕따' 시켰다며 가해 학생 5명을 폭행한 혐의(폭력 등)로 김군(16)군 등 고교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S중학교 동창생 친구가 A고등학교로 진학한 뒤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 14일 오후 6시30분께 A고 윤모(16)군 등 5명을 해운대구 좌동 D프라자 옥상으로 유인해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특히 김군은 윤군의 어깨와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잔혹함을 보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진국기자**

택시분실 휴대폰 불법 복제

부산 사하경찰서는 분실한 휴대폰을 가져온 택시기사들에게 불법으로 휴대폰을 복제해두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전파법 위반)로 전지 택시기사 홍모(35)씨를 4일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택시기사들이 휴대폰을 가져오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제를 해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1차례 5만원씩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400여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금급 수입업자 72억 탈세

부산 사하경찰서는 4일 면세가로 금을 구입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서울 종로구 구 수입업자 대포 최모(41)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6개월여 동안 해외수입업자를 통해 금급 793억원 어치를 면세가로 구입한 뒤 금은방 업주 등에게 736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72억8천만원 상당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김해·양산

김해 한옥촌

8일 개관

고급호텔급 운영 눈길

전통가옥과 생활상을 담은 김해 한옥체험관이 오는 8일 문을 연다.

김해시는 가야문화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한옥체험관이 오는 8일 개관,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한옥체험관은 시내 봉황동 425의 13 일대 1천240평 부지에 모두 57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됐다. 안채와 별채, 사랑채, 사당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가야시대 전통가옥의 이미지를 가미한 황토방으로 만들어졌다.

객실은 가족실과 개인숙실 등 2~4인용 13실이며 각 방에는 고가 구와 보로, 방석, 편지꽂이, 병풍, 한지로 만든 명심보감 책자 등의 전통 실내장식이 배치돼 있고 방과 연결된 거실 용도의 누마루와 대청 마루에 있는 거문고와 전통 등불, 죽부인, 목침 등이 한옥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또 객실의 부대시설로 한식당, 전통차집, 정원 등 다양한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등 고급호텔급으로 운영은 가야대학이 맡는다.

시와 가야대학 관계자는 "한옥체험관이 개관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은 물론 부족한 숙박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야유적지와 연계한 한옥체험촌이 전통문화의 체험 명소가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태백기자 jeong12@**

양산시민 '향토자공심' 높인다

시, 2009년까지 시립박물관 신축·문화원 이전

"북정고분군 일대 역사 요람화 살아 숨쉬는 문화정체성 확립"

양산시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시립박물관 등 문화·예술기반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에 나선다.

양산시는 신라시대 고분군이 산재한 북정동 북정고분군과 신기동 신기고분군을 정비, 양산을 상징하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북정동 고분군 인근에 양산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 한편 양산문화원도 신축·이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가 오는 2009년 말까지 19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983㎡로 건축할 시립박물관



양산시가 오는 2009년까지 신축·이전을 추진 중인 북부동의 현재 양산문화원 건물 전경. **천영철기자**

에는 각종 유물 전시관 등이 들어선다. 시립박물관에는 신기·북정고분군 등 양산지역에서 그동안 출토된 각종 유물들이 전시돼 양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교육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물관 건립은 지난 1920년 일본이 북정고분군을 발굴한 뒤 일본으로 가져간 신라금동관과 구슬, 토기 등 각종 유물 800여점에 대한 유물 환수 운동(본부 8월2일 10면 보도)을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또 지역 전통문화와 예술을 보전·계승하는 북부동 양산문화원 건물이 낡고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립박물관 인근으로 문화원을 신축·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72억을 들여 2009년까지 북정동 4천960㎡에 지상 3층, 연면적 2천310㎡의 문화원 건물을 새로 지어 지역 문화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은 양산이 신라문화권이었던지 가야문화권이었던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박물관과 문화원 등이 새로 지어진다면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철기자 cye@**

"1년에 한번은 부족, 늘려달라"

본사·김해시 주최 '숲길마라톤' 칭찬 홍수

본사와 김해시의 공동주최로 지난달 27일 열린 김해 숲길 마라톤대회에 대한 '칭찬 릴레이'가 개최된 지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숲길마라톤 홈페이지를 비롯한 김해시 주최 홈페이지 등지에 연일 대회를 준비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대회 참가자들의 글로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대회 당일 퍼퓸트 쓴 아진 비 속에서 마지막 주자가 끝인할 때까지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자원봉사자들과 매끄러운 진행을 한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마움.

지난달 27일 퍼퓸트 빗속 진행

자부·관계자 열성적 지원

"이런 대회 처음" 고마움 표시

이 대회에는 김해 북부동 자원봉사 사회(회장 허순옥)와 분성여고 학생 등 모두 200여명이 참여해 대회 안내는 물론 응원과 먹거리 제공 등을 담당했다.

대회에 참가했다는 차모(41)씨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비를 맞으며 달려본 그 길을 30년만에 같은 상황에서 달려왔다"면서 "감회가 새로웠고 비를 맞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지난달 27일 열린 김해숲길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응원 속에 출발하고 있다. **정태백기자 jeong12@**

않고 응원하며 먹거리를 챙겨 준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 고마웠다"고 말했다.

대우에서 참가했다는 이모(38)씨는 "여러 대회를 다녀왔지만 대회를 마치고 난 뒤 이렇게 칭찬을 받지는 못했다"며 "이런 대회를 1년에 한번 밖에 안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대회 관계자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열악한 일기 속에서 중도에 포기 않고 끝까지 완주해 참가자들과 열성적으로 대회 운영에 참여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 숲길마라톤대회는 부산일보와 김해시, 김해생활체육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남은행이 후원했다. **정태백기자 jeong12@**



미니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양산시 동면 사송지구 내에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어 이설 또는 지중화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태권기자**

송전탑 14기 통과 '전자파' 불안

이설·지중화 요구 민원 잇따를 듯

미니 신도시 추진 양산 사송·내송지구

미니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양산시 동면 사송·내송지구 내에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어 이설 또는 지중화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4일 양산시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가) 제출한 양산 사송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조성 완료되는 276만6천㎡ 규모의 사송·내송지구에는 총 14기의 송전선로(송전탑)가 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니신도시 조성이 완료되고 주민 입주 시작될 경우 지구 내 송전선로 통과로 인한 전자파 불안과 함께 도시미관 훼손 등의 이유로 송전선로 이설 또는 지중화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산신도시 1단계 지구 일부 아파트단지외 학교 인근지역에 송전선로 8기가 지나가면서 입주민들의 송전선로 이설 또는 지중화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설 또는 지중화 비용문제 분담 등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반발을 사고 있다.

주공측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구 내 입주민들의 전자파 등 피해를 예측했다"라디오 및 TV 수신장애 등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공측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일단 지구 내 송전선로 통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했다"며 "그러나 입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송전선로를 사업지구 외곽으로 이전 또는 지중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공은 지난 1일 동면사무소에서 사송지구 사업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개발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태권기자 ktg660@**